

지역 소식통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영상 공모전

고창군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영상 공모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드론영상과 자유 영상으로, 자유영상은 UCC·숏츠·다큐멘터리 등 자유로운 형식이며 출품수는 1인 혹은 팀당 3편 이내로 자유롭게 출품이 가능하다. 해상도는 1280*720(pixel) 이상이며 avi·wmv·mp4 형식이 요구되고 총 영상 길이는 3분 이내로 제한된다. 영상 공모전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내부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총 13개의 영상을 선정하고 최우수상(500만원), 우수상(200만원), 장려상(75만원), 입선(50만원)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마실축제 맞이 교동천 인공습지 꽃단지 조성

부안군 환경과는 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개최되는 부안마실축제 주 행사장 인근 교동천 인공습지에 화려한 꽃 단지를 조성하였다. 교동천 인공습지는 매년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이번 축제 기간에는 노란 메리골드와 붉은 백일홍이 인공습지의 경관과 한층 어우러져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마실축제 주 행사장의 뜨거운 열기와 다르게 인공습지는 작은 호수와 구름다리로 조성되어 있어 주간에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사색의 공간을 마련하고 야간에는 화려한 야간 조명과 꽃빛으로 마음과 건강의 해방구가 될 것이다. 교동천 인공습지는 부안을 서위리 일원의 도심지 내 유수지로 인근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정화해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완공된 곳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로운 문화 · 관광도시 정읍'

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용역 중간보고회... 관광정책 방향 등 모색

정읍시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과 역사·문화·자연유산을 활용한 벨트화 등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정읍'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으로 국내외 관광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사업 및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연 유산을 특색있게 벨트화해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28일 이학수 시장과 국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관광개발사업 발굴 및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전북연구원 의 과업 내용 보고와 함께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정읍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갈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속 국내외 관광 환경과 정부와 전북도의 관광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정읍시의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정읍 관광지원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광사업의 고도화, 차별화된 관광코스 발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대표 콘텐츠 육성, 새로운 관광 미래 청사진 마련 등이 시급하다. 정읍 방문객의 60% 이상이 내장산 방문객으로 나타나 신규 관광객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나이에 대한 대응책도 절실하다. 체류 일정에 따른 세심하게 조정된 관광코스, 내장산국립공원이나 동학농민혁명유적권 등 권역별 특성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인 방안 등도 제시됐다. 시는 특히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제시된 정읍천~정읍역 연계 핫 플레이스 조성(도심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정읍치유관광 거점 조성, 국책사업인 (가칭) 중부권 관광 개발 계획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변화된 관광정책에 대응한 사업 발굴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확보, 관광객 니즈(needs)에 맞게 리뉴얼(renewal)한 것인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정읍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추진상황 보고회

정읍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14개 부서장과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대회 홍보와 교통, 숙박, 안전, 관광, 도민참여 등 세부 분야별 과제에 대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이하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26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특히 정읍에서는 14일과 16일 태인성황축구장에서 축구경기가 열린다. 이에 따라 시는 전북도 차원으로 추진되는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와 축구경기 기간 국내외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이 대거 정읍을 찾을 것으로 보고 음식·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찍부터 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의 부서별, 유관기관의 준비상황과 향후 세부 계획, 보완점 등을 충분히 공유한 만큼 남은 기간 더욱 꼼꼼하게 대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특히 경기장 여건이나 숙박, 교통, 안전 등의 기본 준비뿐만 아니라 대회기간 정읍을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컨텐츠를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빈틈없는 준비 총력

부안군, 제10회 부안마실축제 최종 현장 보고회

부안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안읍 매창공원을 비롯한 부안 전역에서 열리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지난 1일 최종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 등 부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축제 전체 프로그램과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시뮬레

이션과 세부계획 설명으로 진행됐다. 8개의 테마별 마실존마다 다채롭게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점검하였고, 특히 최고의 마실을 찾아다와 '뽕밭한해 판파티' 등의 핵심 콘텐츠들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메인무대 등 축제장 곳곳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축제장 설치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최종 확인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만큼 군민과 방문객들이 부안에 마실 가득 축제장에 와서 즐거움과 따뜻한 힐링을 느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화려한 봄꽃 연출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군청과 주요관광지,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 화려한 봄꽃을 연출하고 있다. 고창을 맞이하는 군청주변에는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공간으로 꾸몄다. 펜지, 데이지, 수련, 프록스, 제라늄, 남천 등 색깔의 꽃들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고창읍성과 고인돌화단, 월곡교차로 구간에는 꽃담을 비롯해 꽃 조형물 등이 만들어져 각 구



간마다 테마가 있는 포토존과 아름다운 봄꽃·화훼작품으로 꾸며졌다. 선운사에는 관광객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고창초등학교에는 꽃이 있고 동심이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반려견과 함께 산보하는 주민과 봄나들이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조화를 이루며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봄날의 하루를 즐기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청정자연의 생태문화, 담백한 고향의 역사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화훼 연출로 고창의 품격있는 모습을 꽃으로 표현해 다시 찾고 싶은 고창에 한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화사한 봄꽃을 보시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었던 군민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농기센터, 병충해 '종자소독' 철저 당부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온탕소독 및 약제침지소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자소독에 앞서 자가재종한 종자는 충실한 법씨를 고르기 위해 소금물가리기를 우선 실시하는데, 소금물가리기 작업은 축정이 종자를 골라낼 수 있고, 소독효과도 20~30% 높일 수 있다. 소금물가리기를 마친 법씨는 온탕소독과 약제침지소독 방법으로 종자를 소독하며, 방제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온탕소독 후 약제소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종자소독 후에는 법씨담그기, 성터우기를 실시한 후 파종하는데, 법씨담그기는 물 20°C에 5일간 담가 법씨에 물

을 충분히 흡수 시키며 품종별 발아 특성을 고려해 법씨담그기 기기를 조정해야 한다. 고창군은 올해 전체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했다. 육묘상자처리제 활용 기술은 벼농사에 있어 노동력 절감 병해충 사전방제, 농약 방제횟수 및 사용량 줄이기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이라는 이점이 있어 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올해 보급된 정부보급종벼 종자는 모두 미소독 종자이므로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법씨 소독만으로도 법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병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못자리 전 필수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